

## 近刊 獸醫學文獻 紹介

### Honey Bee Pathology (1981年版)

이책은 영국의 Rothamsted Experimental Station의 Leslie Bailey에 의하여 집필된 것으로 Academic Press Inc.(London) Ltd.에 의하여 간행되었으며, 1981年度版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근간 수의학 문헌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꿀벌의 질병에 관한한 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의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우선 본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책은 본래 동 저자(Bailey)에 의하여 이미 간행된 바 있었던 1963년판의 “Infectious diseases of the Honey-bee”(꿀벌의 전염성 질병)에 근거를 두고 그 이후의 경험과 자료를 보완하여 蜜蜂病理學(Honey bee Pathology)이라는 책명으로 개명 편찬된 것이다.

총 10개의 chapter로 되어 있으며 124페이지의 적당한 볼륨이다.

제 1 장 서론으로부터 제 2 장에는 꿀벌에 대한 자연사(natural history)와 양봉(bee-keeping)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되어 있으며 제 3 장에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관하여 영국국내에 발생이 있는 질병과 발생이 없는 질병에 관하여 기술하였으며 바이러스의 배양과 정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제 4 장에는 미국형 부저병(American foul brood)과 유럽형 부저병(European foul-brood) 기타 세균성질병에 관하여 논술하였으며 제 5 장에는 백묵병(Chalk-brood)과 석고병(Stone-brood) 기타 진균 및 효모에 의한 질병들을 해설하였다.

제 6 장에는 *Nosema apis*를 비롯한 여러가지 원충성 질병에 대한 병인, 증상과 진단, 치료 및

방제대책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 7 장에는 기문응애(*Acarapis woodi*)와 꿀벌응애(*Varroa jacobsoni*) 등 기생성 응애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 8 장에는 곤충류와 선충류 기생충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 9 장에는 원인불명의 질병(Disorders of Uncertain Origin)과 비 전염성질병 즉 식물독과 살충제에 의한 피해 등에 관하여 논술하였다.

제 10 장에는 꿀벌질병에 대한 임상적 치료대책에 관하여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제 11 장에는 간단한 결론을 내렸는데 양봉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는 다른 축산분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질병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의 양봉산업이 특수 축산업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양봉군 수도 100만군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편 국내 일부지역에서는 부저병의 발생보고도 있었으며 백묵병(쇼크브루드)으로 알려진 진균성 질병이 문제시되고 있다.

꿀벌이 수의사법에 지정된 수의사의 진료대상 동물이며, 꿀벌의 부저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지정된 제 1 종 법정 가축전염병의 하나임을 생각할 때, 봉병에 관한한 수의학적인 전문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봉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임상수의사도 양성되어야 하고, 봉병에 대한 약제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에 수의사의 전문적 지식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獸醫傳染病學(第2版)(1984年版)

이책은 日本의 北理大學 獸醫畜産學部 獸醫學科의 笹原二郎 등에 의하여 1979년도에 처음 출간된 바 있는 것을 5년만에 내용을 보완하여 제2판으로 새로 출간한 것이다.

집필진은 모두 46명이며 일본내의 여러대학과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염병학, 미생물학, 공중위생학, 기생충학, 내과학 등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집필된 것을 近代出版(東京)에서 발행한 것이다. 전체적인 볼륨은 595페이지로서 제1판(1979년판)보다 페이지수는 줄어들었으나 내용면에서는 새로운 사항이 많이 추가되기도 하였으며 수정보완 되기도 하였다.

총론편과 각론편으로 크게 구분하여 편집되어 있으며, 총론편에는 1. 감염과 발병기서, 2. 역학, 3. 진단, 4. 예방과 방역, 5. 치료 등으로 세분하여 비교적 상세하며 일본의 가축법정전염병 관리 등에 관하여 근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의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각론편에 있어서는 소, 면양과 산양, 말, 돼지, 개와 고양이, 멧돼지, 원숭이, 가금, 꿀벌, 실험동물, 어류 등 동물별로 구분하여 바이러스, 세균, 진균, 리케치아, 원충 등 병인체별로 각개 질병에 대한 정의와 원인, 발생 및 역학, 증상과 병리 진단, 예방대책과 치료 등에 관하여 교과서로 잘 편집되어 있다.

이책의 특징은 외국으로부터의 빠른 정보를 입수하여 일본 국내사정에 맞도록 번역 또는 용어를 제정하여 정보를 보급하는데 있으며, 그러한 사항은 책머리에 있는 범례에 있어서 용어 특히 바이러스나 세균의 이름, 질병명 등을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본편에 수록된 내용중 교과서식의 내용은 그런대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에 삽입되어 있는 부록편들은 최근의 정보를 얻기에 좋은 자료로 사료된다.

예를들면 역학편에 있어서의 부록1. 통계용어,

부록2. 전염성질병 발생통계, 치료편에 있어서의 부록1. 의약품의 사용규제에 대하여, 부록2. 사료첨가제 및 사료첨가물에 대하여 등은 우리에게도 귀중한 자료로 인용될 수 있다.

각론편에 있어서도 사르코시스티스병이나 포유동물의 레오바이러스 감염증, 닭티프스, 사람의 클라미디아병, 꿀벌의 초크브루드, 실험동물의 라사열(Lassa fever) 기타 실험동물과 어류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정보자료들은 국내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좋은 내용이 많이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각종의 병인체 또는 질병명이 일본어 (또는 한자어 포함)와 영어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용어제정을 위하여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The Antimicrobial Agents Annual/(1986年版)

이책은 미국 Minnesota의 Minneapolis에 소재하고 있는 Hennepin County Medical Center의 P. K. Peterson과 네델란드의 Utrecht 대학병원 임상미생물학과와 Jan Verhoef에 의하여 편집되었으며 출판은 Elsevier(Amsterdam, New York, London)에서 맡았다.

본래는 항미생물성제제에 관한 전문가 68명에 의하여 저술된 것으로 인체의학 및 약학에 관한 내용이지만 수의학에도 적용된다.

총 58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의 정보자료까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이나 연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세균성제제편에 있어서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로부터 베타락탐아신까지 총 18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비교적 상세하게 논술되어 있으며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둘째, 항진균성(항곰팡이성)제제에 대하여는 3 항목으로 나뉘어 논술되어 있는데 Flucytosine, Imidazoles 그리고 Polyene macroride 계열의 항진균성제제들에 관하여 해설이 잘 되

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항기생충성제제(구충제 및 항원충성제)에 있어서는 albendazole, mebendazole, levamisol을 비롯하여 아프리카형 트리파노소마병에 대한 항원충성제제까지 총 9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비교적 참신한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넷째, 항바이러스성제제편에 있어서는 총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논술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독약제를 제외하고는 바이러스에 살멸효과를 나타내는 약제가 거의 소개된 바 없으나 본편의 내용중에는 Acyclovir, Amantadine과 Rimantadine, Interferons, Ribavirin 그리고 Vidarabine 등의 항바이러스성제제들이 논술되어 있으므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항미생물성 치료법(Antimicro-

bial therapy)에 있어서의 최근의 동향에 관하여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술되어 있는데 그중 특히 주목을 끄는 과제는 20세기의 후사병으로 세계적인 우려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AIDS(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에 관하여 동 환자에 있어서의 항생물질에 의한 치료효과와 향후 발전전망 등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으며, 여러가지 항생물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치료적 가치(therapeutic value) 등에 관하여 논술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항생물질(항미생물성제제)의 사용이 자유스럽고 수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쉽게 구하여 자가치료까지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항생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위하여 누구든지 한번쯤 읽어 볼만한 자료로 사료된다.

**수의사를 위한**

# 도몬·L

**바이러스성질환 치료제**

○작용기전 :


- 1) 인터페론 유도작용
- 2) 중화항체생성 촉진작용
- 3) 강한 소염작용
- 4) 면역 촉진작용

○임상적 응용 예 :


- 1) 개의 디스토펜페 증후군, 파보 바이러스 감염증, 전염성기관 기관지염(Kennel Cough).
- 2) 고양이의 전염성 비기관염(FVR) 범백혈구 감소증, 전염성 출혈성 장염.
- 3) 소, 송아지, 돼지의 바이러스에 의한 각종 호흡기 및 소화기질병(송아지 감기, 폐렴, 하리, 자돈 하리, TGE 등)에 특효가 있음(일본 수의축산신보 게재)
- 4) 가축의 각종 바이러스성 또는 복합 감염 질병의 치료시 보조치료제로 사용



**수입·판매원 :**

 **한국동물약품주식회사**

**제조원**

 **NICHIEIDO LABORATORIES LTD.**

※ 기타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사 학술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